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5월 수출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수출업체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중국내 생산 회복과 대외무역 안정 조치, 수출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5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한 3,083억 달러(약 387조1004억원)로 4월 수출 증가율 3.9% 대비 13%p 상승하였음
- 제품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은 수출업체가 해외 주문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 저장성 Ningbo시(宁波)의 모 조경(园林) 공구 제조업체는 올해 기존 제품의 수출 주문량이 1/3 감소하자 혁신 제품 8종을 출시하여 1~5월 수출 증가율 57%를 달성하였고, 장쑤성 Changzhou시(常州) 모 과학기술 기업은 16개의 스마트 생산라인으로 기존의 낙후된 생산라인을 교체한 후 생산효율이 배로 향상되어 1~5월 해외 수출량이 3.3배 증가하였음
- 한편 지역별 기업 서비스 수준을 제고로 수출업체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함. 랴오닝성 Teling시(铁岭)의 모 문구업체는 현지 온라인 RCEP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 RCEP 회원국의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였음
- 1~5월 중국 내 무역업체 수는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한 48.2만 개사이며, 이 중 민영 기업 비중이 49%로 전년 동기대비 1.5%p 상승하였음. 항구의 운송 효율도 제고되어 선박 평균 기항 시간(항구에 머무르는 시간)과 접안시간이 1.98일과 1.04일로 해외 평균 수준인 3.3일과 2.4일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자료원 : CCTV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2-06-13/A1655048180892.html>

2 中, 지역별 2분기 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조치 발표

- 6월 6일까지 10여개 성(省)에서 국가정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관련 건설투자 확대, 내수 촉진, 산업망·공급망 안정, 기업애로 해소 등 방면의 지원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설투자 확대)** △칭하이성은 새로운 농촌 도로 및 개조 프로젝트를 착공했으며, 2022년 건설 목표 1,500킬로미터를 완성하고 1,000킬로미터를 추가 건설할 계획 △랴오닝성은 핵발전, 에너지저장, 고압 송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풍력·태양광 발전 등 24개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 △광둥성은 은행에서 1,570개의 중점 프로젝트와 103개의 주강삼각주의 산업이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것을 제시
- **(내수 촉진)** △저장성은 자동차, 가전, 가구·인테리어, 요식·숙박업, 문화·관광·스포츠 등 업종 관련 소비쿠폰을 발행 △베이징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가격대가 30만 위안(약 5,644만원) 미만이고 배기량 2.0L 이하의 승용차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
- **(산업망·공급망 안정)** △광둥성은 저위험 지역에서 오는 화물운송 차량에 대해 통행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제조업 물류 병목 현상을 해소, 완성품 재고 회전 촉진 △광시성은 자동차, 기계, 식량·식용유, 식품, 전자정보, 건축자재 등 업종의 마이너스 성장 기업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도록 지원 △푸젠성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중점 산업망·공급망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
- **(기업애로 해소)** △윈난성은 증치세 환급 규모를 700억 위안(약 13조 원)으로 인상 △장시성은 숙박·요식업, 운수업, 문화관광,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대상 6~9개월 수도세·전기세·가스요금에 30%의 보조금 지원 △안후이성은 2022년 영세기업에 추가로 5,000억 위안(약 94조 원) 규모의 용자서비스를 제공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류상둥(刘向东) 부부장은 지역별로 산업망·공급망 등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성)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시장화 개혁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경제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2206/07/t20220607_37727410.shtml

3 中, 5월 자동차 판매량 전월 대비 57.6% 증가한 186.2만 대 기록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5월 자동차 판매량은 186.2만 대로 전월 대비 57.6% 증가,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하였고, 1~5월 누적 판매량은 955.5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2.2% 감소함
- 이 중 승용차 판매량은 162.3만 대로 전월 대비 68.2% 증가,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하였고, 1~5월 누적 판매량은 813.3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함

-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44.7만 대로 전월 대비 49.6% 증가, 전년 동기대비 105.2% 증가하였고, 1~5월 누적 판매량은 200.3만 대로 전년 동계대비 111.2% 증가함
- 5월 승용차 시장에서 중국 본토 브랜드 비중이 49.2%로 상승, 1~5월 기준 47.9%로 전년 동기대비 6.4%p 상승세를 보임. 1~5월 해외 브랜드의 승용차 시장점유율은 독일계 20.0%, 일본계 20.1%, 미국계 8.7%, 한국계 1.5%, 프랑스계 0.8%로, 프랑스계를 제외하고 전년 동기대비 전부 하락세를 보임
- 1~5월 중국 본토 브랜드 승용차 판매량 TOP15 중 신에너지차 브랜드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야디(比亚迪), 샤오펑(小鹏), 허중(合众), 리상(理想), 링파오(零跑) 등은 증가폭이 100% 이상에 달했음
- 5월 당월 자동차 수출은 올해 최고치이며 수출량은 24.5만 대로 전월 대비 73% 증가, 전년 동기대비 62.3% 증가하였음

자료원 : 차취망(车聚网), 인민일보 해외판

<https://www.jiemian.com/article/7585681.html>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6/11/content_25922547.htm

4 中, 5G 상용화 3주년 ... 질적 경제성장 견인

- 중국은 6월 6일자로 5G 상용화 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공업정보화부는 그간 5G 기지국 160만 개를 건설하고 교통·의료·전력·교육·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 5G 응용 사례 2만 건, 5G 스마트폰 이용자 4.1억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지난 3년간 차이나타워(中国铁塔)는 누적 300억 위안(약 5.7조원)을 투자하여 5G 기지국 140만 개를 건설하였고, 차이나모바일은 5G 특허 3,600건을 취득하고 5G 기지국 85만 개를 건설하였음. 한편 차이나모바일은 산업계 디지털 전환 관련 업계 선도기업 시범 프로젝트 200개를 전개하고 5G 상용화 사례 8,600건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에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야금, 스마트 광산, 스마트 전력 등 분야도 망라됨
- 차이나유니콤은 2022년까지 5G 기지국 100만 개를 개통하고 5G 이용자를 3.3억 명으로 증가시키며, 5G 상용화 사례 1만 건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류상둥(刘向东) 부부장은 5G 상용화에 힘입어 사물인터넷, 커넥티드카, 산업인터넷 등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5G 핵심부품, 5G 네트워크 주변기기, 5G 응용 분야가 성장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ce.cn/cysec/tech/gd2012/202206/07/t20220607_37726341.shtml

5 中, 2022년 차잎·차음료 시장규모 100조 원 대 예상

- 중국 소비자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면서 차음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차잎 및 차음료 시장규모는 5,611억 위안(약 106조원)으로 예상됨
- 차잎 생산량은 2016년 230만 톤에서 2021년 310만 톤으로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였음
- 2021년 차잎, 즉석 제조차, 차음료 시장규모는 각각 3,049억 위안(약 57조원), 1,334억 위안(약 25조 원), 838억 위안(약 16조 원)이며, 2022년에는 각각 3,223억 위안(약 61조원), 1,534억 위안(약 29조 원), 854억 위안(약 16조 원)으로 예상됨
- 차잎은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흑차, 백차, 황차 등 7대 종류로 분류되며, 이 중 녹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2021년 기준 중국 녹차 시장규모는 1,773억 위안(약 33조 원)에 달했음
- 또한 조미차(调味茶: 원료 및 향료가 가미된 차) 시장규모가 2016년 86억 위안(약 1.6조 원)에서 2021년 152억 위안(약 2.9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

자료원 :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https://www.163.com/dy/article/H96SPB9O0514810F.html>

6 中, 반조리식품 시장 56조원 규모로 성장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조리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의 반조리식품 시장규모가 3,000억 위안(약 56조 원)을 넘어섰음
- 6월 6일 징둥슈퍼(京东超市)는 중국반조리식품산업연맹과 공동으로 '불도장 반조리식품 표준'을 발표하여 식품첨가제, 중금속, 위생, 화학물질(理化), 미생물 등의 5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고 저온 스팸, 소시지, 소고기 완자 등에 대한 표준도 준비중임
- 징둥성셴(京东生鲜: 징둥의 신선식품 사업부문)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징둥성셴 플랫폼에서 불도장의 연평균 판매액 증가율은 100%에 달했고, 징둥성셴은 '징둥 자영 불도장 상품 관리규범'을 제정하여 원료, 완제품, 판매 등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해왔음

- 수산물 반조리식품 관련 징둥성셴은 해외 직수입, 품질 통제, 신제품 연구개발 및 콜드체인 물류 배송 등 방면에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6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콜드체인 창고 및 3,000대 가량의 콜드체인 차량을 통해 신선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하였음
- 징둥(京东)은 2017년부터 반조리식품을 판매하여 2021년 현재 취급 상품 5,000여종,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156% 증가세를 보임
- 징둥성셴(京东生鲜)은 지역별 식자재 생산지와 협력하고 반조리식품 유통업체는 업계 선도기업과 협력하여 C2M(Customer to Manufactory) 주문제작을 진행 중임
- 징둥슈퍼(京东超市)는 반조리식품을 전략적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고 판매 데이터, 트래픽 유입, 옴니채널, 마케팅 투자, 콜드체인 물류 등 6개 방면에서 지원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자료원 : 베이징청년보

<https://view.inews.qq.com/a/20220606A0BA1H00>

7 中, 전기전동 스쿠터·자전거 등 선호도 상승 ... 해당품목 수출도 증가세

- 최근 중국내 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전동 스쿠터·자전거 등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음
- 가전업체 메이디(美的) 그룹은 우한텐팅(武汉天腾)의 55% 지분을 인수하고 전기전동 스쿠터·자전거 등 분야에 본격 진출했고, 우링(五菱) 전동차도 신규 생산한 전동자전거를 출시하고 연간 생산 및 판매 목표를 100만 대로 정했음. 샤오미는 지난해 연말에 전동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을 생산하는 쑤저우탄투(苏州坦途) 회사에 투자를 진행
- 2019년 4월 신규 국가표준인 '전동자전거 안전기술 규범'이 시행되었으며, 시속(25km/h 이하), 배터리(전압 48V 이하), 방화, 연소방지, 충전기 등 관련 까다로운 기준조건을 부여하며 3~5년의 시행 과도기를 두었음
- 당시 새로운 국가표준 출범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이 시중에서 퇴출되었는데, 초상증권에 따르면 2013~2019년 관련 업체수가 2,000개사에서 110개사로 급감하고 2018~2020년 야디(雅迪), 아이마(爱玛), 타이링(台铃), 신르(新日) 등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7.4%에서 57.9%로 상승함
- 중국내 전동자전거 보유량은 3억 2,500만 대이며 텐펑(天风)증권은 2021~2023년 각각 1,500만 대, 2,500만 대, 3,000만 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1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2,290만 대, 수출액은 50.8% 증가한 53억 달러로 집계됨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전동자전거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야디(雅迪), 아이마(爱玛), 신르(新日), 타이링(台铃) 등의 전통 브랜드와 Segway-Ninebot(九号公司), Niu Technologies(小牛电动) 등 신예 브랜드 모두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추세임. 신르(新日)는 해외 대리상을 통해 100여개 국가 및 지역, Niu Technologies(小牛电动)는 50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했음

자료원 : 중국상업정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06/202206080902431006.html>

8 中, 무가당 음료 인기 지속 상승세

- 중국인 소비자들이 무가당, 다이어트 음료를 선호하면서 무가당 음료 인기가 지속 상승세임. 2014~2019년 무가당 음료 시장은 연평균 42.8%의 성장률로 전체 청량음료 성장률의 9배에 달했음
- '건강중국 음료식품 당 줄이기 행동백서(2021년)'에 따르면 중국의 무가당 음료 시장규모가 2027년 277억 위안(약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한편 식품업계 전문 서비스기관인 텡망연구원(町芒研究院)에서 발표한 '2022년 무가당 음료산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무가당 탄산음료 중 44%가 방부제, 감미료 등 6종 이상의 첨가제를 사용했으며, 향후 발전 추세는 양질의 감미료를 사용하고 첨가제를 줄이는 것임
- 2021년 타오바오와 티몰 플랫폼에서 중국산 신예 브랜드 원치선린(元气森林)이 5.6억 위안(약 1,05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추월하였음

자료원 : 경제참고망

http://www.jjckb.cn/2022-06/06/c_1310615402.htm

9 中, 인광석 가격 5월 20% 이상 급등, 톤당 900위안(약 17만 원) 기록

- 인광석 가격이 5월에 20% 이상 급등하여 올해 배로 올랐으며 중국내 인광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BAIINFO에 따르면 6월 6일 중국내 인광석 가격이 톤당 904위안(약 17만 원)에 달함

-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인광석 비료 가격이 높고 신에너지 산업이 리튬인산철 원료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인광석 가격이 상승세로 향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인광석 자원을 보유한 화학공업 선도기업이 원가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함

자료원 : 상하이증권보

<https://36kr.com/newsflashes/1774171586050304>

10 中, 요소 비축 제도로 농업생산에 50만 톤 공급

- 중국은 2004년부터 화학비료 비축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화학비료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저우거래소(郑州商品交易所)는 '국가 화학비료 비축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요소 비축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였음
- 2021년 11월 '2021~2022년 요소 비축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전년도 대비 △사업주기를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요소 비축규모를 1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확대 △참가기업을 무역업체에서 생산업체, 무역업체, 소비업체로 확장 △기업 보조금 한도를 50만 위안(약 9,500만 원)에서 100만 위안(약 2억 원)으로 인상시켰음
- 올해 4월 말 중농그룹(中农集团), 중화화학비료(中化化肥) 등 10여개 업체가 참가한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허난, 허베이, 안후이, 산둥 등지의 2,500만 무(亩=667m²)에 농경지에 50만 톤의 요소를 공급하였음
- 한편 해관총서에 따르면 1~4월 요소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한 45만 톤으로, 요소 수출에 대한 법정 상품검사 실시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감소함

자료원 : 중국경제주간, 신후선물(新湖期货)

<https://baijiahao.baidu.com/s?id=1734513297229492220&wfr=spider&for=pc>

<https://futures.eastmoney.com/a/202206062402775369.html>